

건강 칼럼

목이물감 입냄새 후비루 유발하는 축농증과 한의학

축농증의 의학적 용어는 부비동염이다. 안면부에는 공간이 찬 공간이 여러 개 있다. 입구가 좁은 이 공간들은 코와 미세한 통로로 코와 연결된다. 이것이 부비동으로 코 주위에 4쌍이 있다. 상악동(maxillary sinus), 접형동(sphenoidal sinus), 사골공동(ethmoidal sinus), 전두동(frontal sinus)이다.

염증으로 비점막이 부으면 공간인 공동의 입구가 막힌다. 각 공동의 점막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해 세균에 쉽게 감염된다. 분비물은 고름이 된다. 고름이 어느 공동에 차느냐에 따라 증상이 차이가 난다. 전두동이 감염되면 두통이 잦고, 사골공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후각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다.

부비동에 염증 양이 많으면 비강으로 빠져나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발생한다. 염증이 많으면 목 이물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4쌍의 동공 중 양쪽 위턱에 있는 상악동이 가장 크며 부비동염에 잘 걸린다. 숨을 쉬는 상기도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으로 옮겨간다.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부어 코와의 연결통로가 막힌다.



김 대 북

해운대명린한의원 원장

세균과 곰팡이는 폐쇄된 통로에서 쉽게 증식, 부비동염을 일으킨다. 특히 부비동이 작은 소아는 코 뒤의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면 콧구멍을 막아 급성 축농증으로 진행한다.

부비동염은 4주 미만은 급성, 3개월 이상은 만성으로 분류한다. 주 증상은 누런 콧물, 코 막힘, 후비루, 기침, 피로감, 두통, 미열이나 고열 등이다. 축농증 진단은 내시경 비강검사로 누런 콧물이나 코 안의 폴립, 점막의 비만, 점액의 청탁 등을 확인 한다. 때로는 방사선 촬영으로 알레르기 비염 동반 여부, 비강의 병리적 변화도 검사 한다.

바이러스성 축농증은 치료가 빠르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함께 있으

면 재발이 잘 된다. 축농증 치료 원칙은 부비동의 환기, 배설 가능 회복과 유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는 약물복용과 비강세척을 우선으로 한다. 약물 복용으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선택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부비동염을 비연증(鼻淵症)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폐에 습한 기운이 들어 열이 발생해 생기는 병이다. 비연은 콧물이 불 흐르듯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다. 원인은 찬바람(風寒), 폐의 찬 기운(衝寒)과 폐의 열간(肺火), 코의 열(鼻熱), 후덥지근하고 찜뽀한 습열(濕熱), 급성비염, 이물자극 등이다. 찬 기운이 강한 겨울에 많이 생긴다.

한의학에서는 근본치료를 시도한다. 동공의 입구를 넓혀도 질환이

로 코의 점막이 부으면 다시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치료는 몸의 일부분, 단순한 코 질환이 아닌 인체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인체의 오장육부와 밀접한 폐를 우선 다스리는데 중점을 둔다.

한의학에서 '코와 폐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본다. 주로 코 질환은 폐에 열이 많거나 너무 차가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저하된 자율신경 회복도 꾀해야 한다.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켜 근본적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또한 부비동의 염증을 내리고, 점막 재생 촉진 처방을 한다. 열이 많은 급성축농증은 소열진탕과 해열작용을 하는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청폐음(淸肺音) 등을 처방한다.

염증이 만성이 된 경우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창이자산(蒼耳子散) 등이 효과적이다.

약물은 증세에 따라 다르지만 1~3개월 복용이 일반적이다. 약물 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하면 더욱 빠르게 증세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코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침 치료는 일 주일에 1~2회가 바람직하다.

사설

대통령 후보 경선 전망

이재명 경기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오는 추석 연휴 직후에는 호남 지역 경선이 기다린다.

이때 결과가 전체 관도에서 상당히 큰 요인이 될 것 같다.

민주당 경선의 종착점은 10월 10일이다.

선두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할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추격해서 결선 투표로 갈지도 지켜볼 포인트다.

민약 결선 투표로 간다면 후보들끼리의 합종연횡이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히 많다.

가정사 문제를 포함해 예매우 문제, 그리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일처리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를 통해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뿌려 놓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기울어진 한국사회 운동장을 바로 세워주기 를 바라는 기대다.

이 지사는 최고우연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목표를 정하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속도전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부합될 수도 있다.

현재의 지지세를 잘 유지한다면, 하자가 많은 야당 어느 후보의 중도 하차 등 야권의 분열까지 등에 업고 탄탄대로를 달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8월 말, 예비 경선 후보 등들과 함께 출발했다. 13명 후보 중 8명으로, 또 다시 4명으로 압축하는 두 차례 컷오프를 거쳐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정한다.

먼저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대선 후보를 뽑게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별로 편치 않다.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는 두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끝까지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경선 이후엔 제3차 진영을 선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이슈도 남아 있다.

민원 만족도 조작한 어느 행정기관

몇 년 전 병무청이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민원 만족도 1위를 차지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작된 결과였다. 병무청이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동원해서

가짜 민원을 먼저 냈다. 그 뒤에 만족도 점수를 높게 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가 개

최한 2017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중앙 행정기관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과 포상급까지 받았다. 감사원이 민원 청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 8천600여 건을 살펴보니 이런 사실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천 건 이상이 직원 본인이나 처명으로 제출한 이른바 '셀프 민원'이었다. 민원 만족도 점수를 높이려고 가짜 민원을 내고 점수를 높게 매긴 것이다.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기준이 공명합니다." 이는 2018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게시판에

수원 병무청 관련 문의 내용이 다. 그러자 즉각 답변이 올라왔다.

이에 흠뻑눴는지 민원인은 가장 높은 점수인 '매우 만족'을 체크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게

시판에 글을 올리고 점수를 매긴 사람은 어느 지방병무청의 민원관리 업무 실무자인 A씨였다.

문제는 A씨가 특이 사례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직원들에게 셀프 민원 369건을 할당해 민원 만족도 점수를 10점 이상 올렸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아예 목표 점수를 87.2점으로 정해놓고 셀프 민원 70건 이상을 제출했다.

급기야 직원 게시판에는 "하위직 피과 삶을 갈아서 받은 1위다", "민원인이 다 가족, 친인척"이라는 식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셀프 민원들을 제외했다니 1위였던 병무청 순위가 11위 이하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코로나19 사망자 추모하는 흰 깃발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설치미술가 수잔 브레넨 퍼스텐버그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추모하는 설치 작품 '인 아메리카: 리멤버'(In America: Remember) 흰 깃발들이 꽂혀 있다. 설치가 완료되면 63만 개 이상의 흰 깃발이 밀려나게 된다.

백신 접종 증명서 지참한 캄보디아 고교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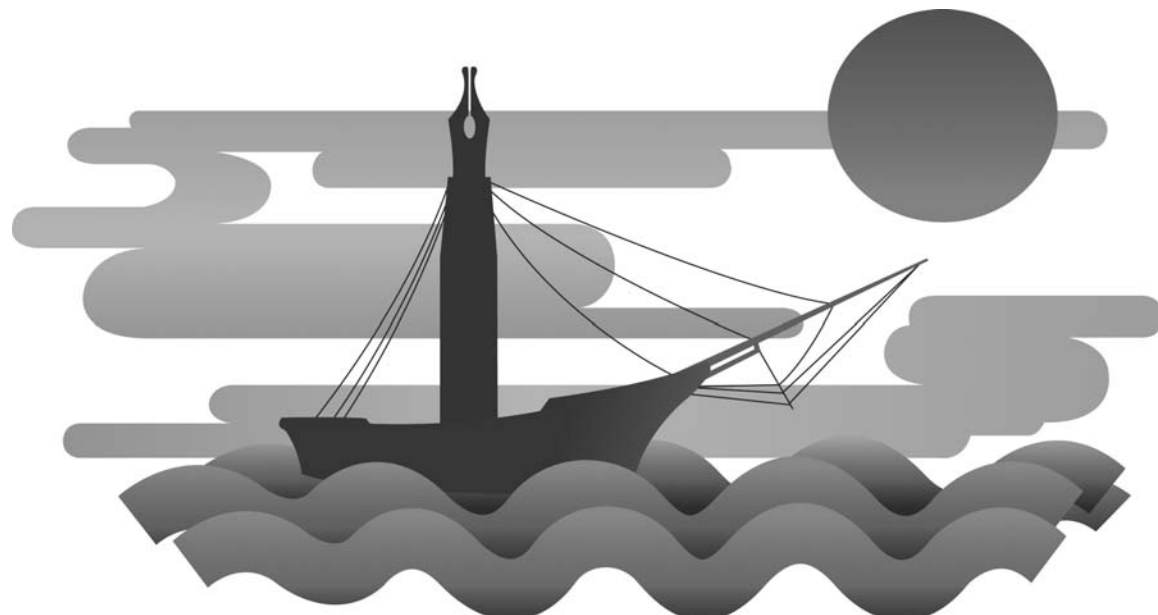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프놈펜시는 최근 교사와 학생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 낮은 감염률과 학교의 방역 수칙 준수 등으로 중등학교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